

S#07. 학교 교무실 안(실내/오후)

가은 (잘못 들었다는 듯 격양된 목소리로) 네? 사과로 끝내자고요?

학교 교무실, 가은과 부장 교사가 교무실 내 구석진 곳에서 대화를 나눈다.

부장 교사 그래, 얘기 들어보니까 은채 학생도 이 사실 외부로 새나가는 거 꺼려하더만?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야.

가은 아무리 그래도 일단 교육청 매뉴얼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은채랑 최상현 분리조치부터 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들어가야,

부장 교사 (가은의 말을 가로채며) 은채 말 들어보니까 거부 반응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데? 이런 일 청소년 시기 이성 간에 쉽게 일어날 수 있어. 심지어 둘이 사귀었다며?

가은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죠.

부장 교사 아니, 이게 왜 핑계인가? 원래 여기에서 요정도 사건은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.

가은 그냥 방관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!!!

부장 교사 아~이,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? 목소리 좀 낮춰...!

소리를 지르고 난 후 무언가 떠오른 듯 놀라는 가은.

부장 교사의 마지막 말소리가 멍멍하게 울린다.